

## 급변하는 숙박 시장

- ▶ '18년 5월 8일(화) 배포
- ▶ 자료 총 2매

기 관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책 임	김형곤 소장/Ph.D/대학원 교수
문 의	정경식 연구원/Ph.D
이 메 일	jungks@consumerinsight.kr
연 락 처	02) 6004-7627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 여행상품 예약전문 채널, 국내숙박 시장까지 위협

- 해외 숙박 구매시, 여행상품 예약전문 채널 이용 70%
- 국내 숙박업체 직접예약 줄고, 여행상품 예약전문 채널로 이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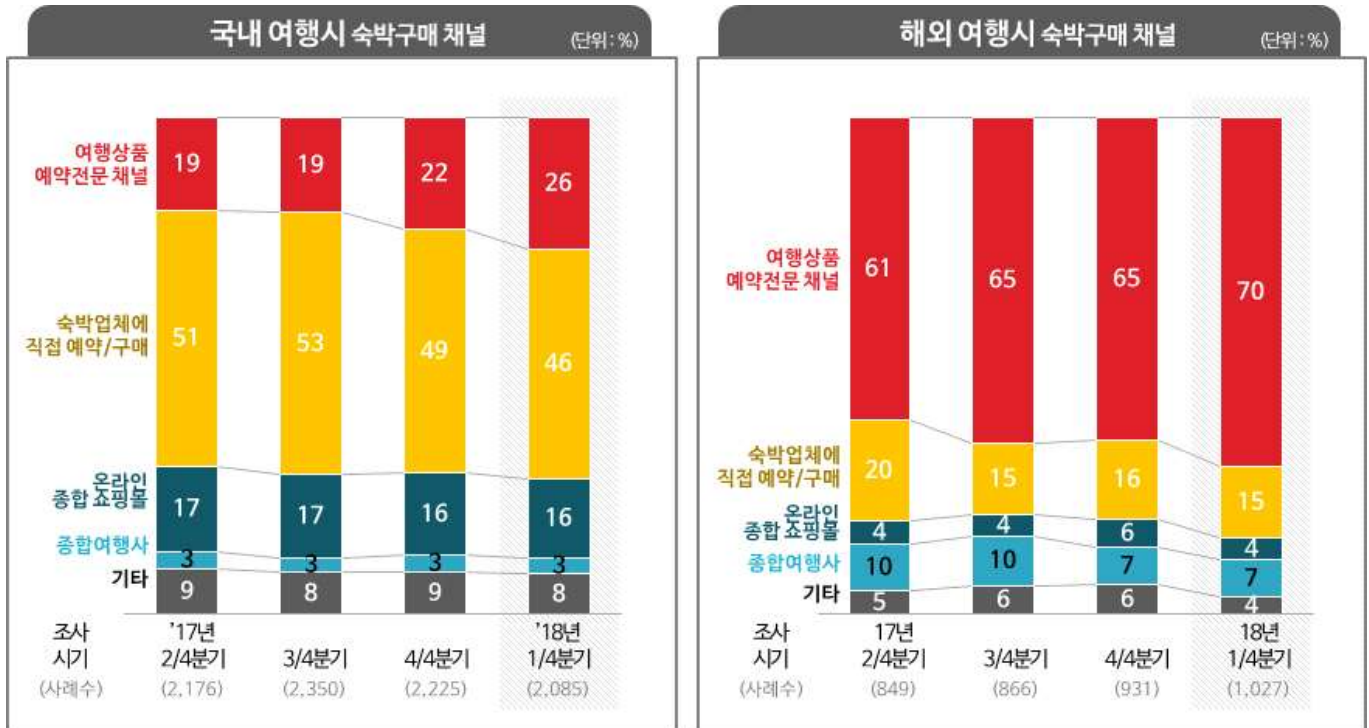
OTA와 메타서치 서비스 등 여행상품 예약전문 채널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해외여행 숙박 시장의 70%를 장악한데 이어 국내여행에서도 기세를 키워가고 있다. 기존 온라인 종합 쇼핑몰인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도 여행시장에 가세했지만 여행상품 예약전문 채널의 독주는 막을 수 없어 보인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조사)에서 지난 1년 간 1박 이상의 국내여행 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숙소를 어떻게 예약/구매했는지를 묻고, 분기별로 결과를 정리했다[그림1].

▲국내여행; 최근('18년 1/4분기) 국내여행을 위한 숙소 예약/구매는 ‘숙박업체에 직접 예약/구매’가 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숙박예약 전문 웹사이트/앱, OTA, 메타서치 서비스 등 ‘여행상품 예약전문 채널’이 26%,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을 포함한 ‘온라인 종합 쇼핑몰’이 16%였다. 종합여행사는 3%, 기타 8%로 크지 않았다. 여전히 국내 숙박은 유통채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행상품 예약전문 채널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년 2/4분기와 비교하면 숙박업체에서의 직접 예약/구매는 5%p 감소한 반면, 여행상품 예약전문 채널은 7%p 증가했다.

▲해외여행; 최근('18년 1/4분기) 해외여행시 숙박의 예약/구매는 ‘여행상품 예약전문 채널’이 70%로 확실한 강세였다. 다음은 ‘숙박업체에 직접 예약/구매’가 15%, ‘종합여행사’ 7%, ‘온라인 종합 쇼핑몰’ 4%의 순이었다. '17년 2/4분기와 비교하면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여행상품 예약전문 채널’은 무려 9%p가 증가했고, ‘숙박업체에 직접 예약/구매’와 종합여행사가 각 5%p, 3%p 줄었다. 숙박 예약/구매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여행상품 예약전문 채널’의 약진, 숙박업체 직접 판매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그림1] 여행시 숙박 예약/구매 채널



Q. 'OOO' 여행의 숙소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예약/구매하셨습니까? 여러 곳을 이용하셨다면, 구입금액이 가장 큰 곳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해외여행 상품을 기반으로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OTA와 메타서치 서비스가 해외여행 시장을 확실히 장악했을 뿐 아니라 국내여행 시장까지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반면, 국내여행 상품을 기반으로 해외여행 상품에도 도전장을 내민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인터넷 종합 쇼핑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여행상품 예약전문 채널의 시장 지배는 해외여행에 이어서 국내여행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천명 조사)을 대상으로 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http://www.consumerinsight.kr/travel) 에서 볼 수 있으며, 2016-2017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www.consumerinsight.kr/travel](http://www.consumerinsight.kr/travel))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